



생의 한가운데

전통주의 씨앗, 전통누룩

박 소 영

서울문화연구소 주담 대표

얼마 전 강원 춘천시에 전통주 산업 활성화의 핵심 기반인 누룩연구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강원대학교 내에 소재한 누룩연구소는 올해 진행할 연구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앞두고 있다. 전통주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누룩연구소의 설립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누룩연구, 한국 토종누룩의 재현과 보급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누룩은 무엇이고, 누룩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누룩은 우리나라 전통 술 발효제이다. 숙성 중에 찹쌀, 멥쌀, 보리쌀, 옥수수, 수수, 조 등 주원료의 전분질이 분해, 당화해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효소원이 되는 원료이자 당을 분해해 알코올을 생성시키는 효모를 증식시켜놓은 배지라고 할 수 있다.

누룩은 보리, 쌀, 찹쌀, 멥쌀, 녹두 등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젖산 생성이 잘되어서 좋은 통밀을 주로 사용했다.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김치처럼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자기만의 손맛과 재료로 개성 있는 술을 빚었었다. 우리 민족은 각자 원하는 맛과 향을 내기 위해 술 빚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구사해왔는데 무엇보다 술의 개성을 드러내는 최고의 원료는 누룩이었다. 조선시대 문헌

에 등장하는 누룩의 제조법은 최소 70여 가지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술의 특징을 독보적으로 보여주는 전통누룩은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사라진 우리 전통 누룩을 재현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전통누룩이 우리 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기초적인 재료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케는 우수 균주를 접종해서

음해보면서 누룩을 통해서 일본 술의 기원을 본 것 같다면 다시 한번 감탄했었다. 자연적으로 배양된 곰팡이들이 창조해 내는 입체적인 맛과 향을 일본의 사케에서는 절대 경험해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유명한 광고처럼 '니들이 전통가양주 맛을 알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전통누룩이 일제강점기를 기점으로 사라진 아쉬움은 몇 마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이다.

막거리불을 기점으로 우리 술의 세계화까지 논의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주가 세계화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전통 누룩의 재발견일 것이다.

유럽에 가면 200여개가 넘는 맥주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수백, 수천가지의 전통주가 있었다. 술을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하나의 음식이자 문화로 생각해보면 우리 술의 재현과 보급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누룩의 연구와 복원이 필요하다. 누룩은 전통주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한때 부는 바람이 아닌 전통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반드시 전통누룩에 대한 연구는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춘천시의 누룩연구소 개소는 문화로써의 가양주를 되살리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체적인 맛과 향을 만드는 일등공신 누룩은 전통주의 씨앗이자 정체성”

각 주종에 적합한 균주로 술을 빚는다. 그렇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는 정감한 맛과 향을 자랑한다. 반면 우리의 전통주는 누룩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곰팡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양되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맛과 향을 갖게 된다.

일본인들이 우리 고유의 누룩을 직접 접하고 놀라워했던 일화가 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지주협동조합 명인들이 정음의 즉력고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송명섭 명인이 마당 곳곳에 다양하게 빚어놓은 전통누룩을 직관한 지주협동조합 명인들은 누룩의 존재만으로도 정말 놀라워했다. 이어 일본의 사케와 우리 전통주를 비교 시

독자의 창

화재예방, 재산을 지키는 안전 재테크

코골 사리게 부는 바람 때문인지 몰라도 겨울은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이다. 집이 따뜻하려면 당연히 난방을 해야 하는데, 농촌에서는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한다. 경제적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화목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목보일러 주변에 펄감을 쌓아놓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칫 펄감에 옮겨붙으면 겁잡을 수 없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다. 최근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화재 통계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화재가 3751건으로 1위를 차지한다. 화재의 주된 원인은 부주의(2464건, 66%)다.

농촌에 사는 인구 중 대다수는 고령이기 때문에 화재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하다.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산불로 번지면 경제적인 손실도 막심하다. 지난해 5월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해 123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3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원



인은 화목보일러의 연통 부실 시 공으로 연결 부위에서 불씨가 새어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안전 사용법을 제대로 숙

지하고 지켜야 한다.

첫째, 보일러 가까이 펄감(나무)과 같은 가연물을 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만일을 대비해 주변에 소화기 및 화재경보기를 비치해야 한다. 실제로 불이 나면 당황해서 소화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안전체험교육을 통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몸으로 익혀 두는 것이 좋다.

둘째, 보일러나 연통이 과열되어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우니 벽과 천장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 설치한다. 셋째, 나무 연료를 넣

은 후 투입구를 꼭 닫는다. 개폐시에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넷째,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여있어야 하고 재떨이까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하게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다가 한 평생 일궈온 우리의 소중한 집과 생명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버핏의 중요한 투자원칙 중 하나는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 역시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재테크라고 생각하자. 안전 체험교육을 통해 화목보일러에 관심을 갖고 화재 상황 시 소화기 등 초기 대응을 신속히 할 수 있다면 화목보일러는 우리에게 따뜻한 힘을 선물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태현(전북119안전체험교관)



독자의 편지

난방용품, KC마크를 확인하세요

미래학자 토머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Our New Historical Divide: B.C. and A.C.'를 통해 인류사는 이제 B.C.(Before COVID-19)와 A.C.(After COVID-19) 즉,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또한 현재 일어나는 변화들, 비상 대책들이 우리 삶에 고착화되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일상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 일상의 변화의 단면들 중 집콕, 재택근무, 삼시세끼 등이 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개학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늘며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정보와 비대면 가족 서비스 등 슬기로운 집안 생활을 위한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계절적 특성으로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더욱 증가하고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져 화재위험성이 상존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주택화재는 1월과 2월에 21%를 차지한다. 3가지 생활안전수칙을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을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첫째, 화재 위험 3대(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보일러) 겨울용품들 안전하게 사용하자. 겨울용품은 추운 겨울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지만 잘



못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 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택 화재를 예방한다.

둘째, 1(하나의 가정·차량에)1(한대 이상 소화기·화재감지기)9(구비)하자. 우리 집에 불이 났을 때 경보와 음성으로 화재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구비돼 있는지 확인해 주택 화재를 대비한다.

셋째, '작은 불은 대비부터 큰불에는 대피 먼저'라는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처럼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우선하는 '불 나면 대피 먼저'를 인지하고 실천하자. 119신고와 소방시설을 이용해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대피로 안전을 확보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안전'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각 가정에서의 행복을 더 많이 찾게 된 시점에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는 안전수칙과 화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안전만은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기대한다.

/윤병현(전주덕진소방서장)

새벽 무단횡단 대형사고 위험 많아

새벽에 차량 통행이 적어 무단횡단을 해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다.

횡단보도로 가면 차가 없는데 신호를 기다려야 되고, 걷기 시작한 흐름이 깨진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지만, 차량 운전자 또한 이 새벽에 도로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없겠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어 심야 무단횡단은 항상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교통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무단횡단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도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른 새벽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운동이 무단횡단으로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다. 한순간의 실수가 돌아길수 없는 불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와 육교를 이용하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용용(군산경찰서 나운지구대)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 제보·투고 】 사회현상이나 일상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 【 홈페이지 】 sjbnews.com/커뮤니티/독자투고 게시판 【 이메일 】 sjb8282@gmail.com

새전북신문 www.sjbnews.com

54916 전주지식민국 백제대로 728 새전북신문 BD

발행·편집인 박명규

인내 / 063) 230-5700

FAX / 063)231-8327

구독료 월정 10,000원 / 부 500원

광고 / 063) 230-5714

구독&독자서비스부 / 063) 230-5712

인쇄 인 우순금

제보 사회부 / 063)230-5850

경제부 / 063)230-5840

문화교육부 / 063)230-5818

정치부 / 063)230-5821

사건팀 / 063)230-5842

지치행정부 / 063)230-5840

2000년 10월 25일 창간(등록일자 : 2000년 10월 23일) 등록번호 전북가-0004(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구독신청안내

063) 230-5712

중 부	인후1동, 인후2동 일부, 인후3동/노동부 청사, 전주교병원, 인후위보아울림, 인후 한신후, 유일고교, 기린초, 인후초, 아줄리 일대.	서 부	경원동, 고사동, 중앙동, 교동, 전동, 진북동, 봉남동, 다기동, 태평동, 서노송동/ 전주시청, 덕진구청, 시교육청, 한신경찰서, 한옥마을, 중앙시장, 남부시장, 동국해상, 9K부, 혁신도시	군 산	군산시 전역	소룡동, 신북동
	010-8640-6855 / 246-6855		010-9397-2328 / 273-1008		010-2520-9593	010-9850-7734
서전주	서산동, 호자동4(서지리구) / 롯데백화점, 이마트, KT전북본부, e편한세상, 사신초, 한일고, 서산중, 전주서중, 아줄초, 서일초, 서산동 일대.	중화산	호자동1가 일부, 호자동2가~호자동4가, 중화산동/ 도청, 경찰청, 호자신시가지, 전주대, 비전대, 전주박물관	익 산	익산시 전역	
	010-6278-5085 / 276-0034		010-2799-1237 / 237-5863		010-6687-7734	
평 화	평화동1가~3가, 동서학동, 서서학동/ 전주교대, 전주교도소	효 자	호자동1가 일부/ 삼천1동~삼천3동, 삼산고, 서도리자, 해성고	김 제	김제시 전역	
	010-8883-5498 / 010-8858-9456		010-8883-5498 / 010-8858-9456		063-548-8866	
덕 진	인후2동 일부, 송천동,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 전미동/우아동1가, 우아동2가, 진북대, 전북대병원, 고숙터미널, 전주역, 전주동물원, 전라고, 송내고, 우아동3가, 용진동, 완주군청	완 주	봉동읍	정 읍	정읍시 전역	
	010-4611-8069 / 242-5432		010-8824-9388		010-4654-3600	
팔 북	팔복동, 동산동, 여의동, 반월동, 장동, 조촌동, 고평동, 성덕동, 만성지구/ 덕진경찰서, 월드컵경기장, CCS전북방송, 전주한지박물관			고 창	고창군 전역	
	010-8627-6325 / 214-0300				010-6608-6842	
남전주	중화산동1가, 중화산동2가 일부, 한신동/ 예수병원, 전주병원, 신흥중, 신흥고, 기전대학, 한신체육관, 근영여고, MBC, 한신병원, 중화산광진, 석정수텔리스, 남원향일, 한신후			임 실	임실군 전역	
	010-8883-5498 / 010-8858-9456				010-3208-2846	
				남 원	남원시 전역	
					010-9068-3077	
				무 주	무주군 전역	
					010-6823-2085 / 322-5005	
				진 안	진안군 전역	
					010-2433-1721 / 433-8291	
				장 수	장수군 전역	
					010-8765-5006	
				순 창	순창군 전역	
					010-5612-7239	
				부 안	부안군 전역	
					010-7247-3947	

새전북신문이 쓰면 大韓民國이 읽습니다.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IN

새전북이 쓰면
대한민국이 읽습니다.

새전북신문을 읽으면 전북이 보입니다.

새전북이 쓰면 대한민국이 읽습니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과 함께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희망이 커집니다.